

가계대출 136.1조원에 0.83%를 곱하면 왜 1.08%가 안 나오나

공표 표를 재구성하면 보험계약대출을 뺀 약 63.3조원이 분모이지만 공식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다

금융감독원 발표 첨부표와 2025년 말·2026년 3월 말 자료를 열어 보고, 여섯 가지 가중평균 계산으로 공표치를 재구성했습니다.

발행	2026.08.31	연번	2026_74
읽는 시간	7분	작성	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
자료 기준일	2026.08.31	검증	공식 원문·현행 법령 대조

연구소의 판단

연구소는 0.83%를 136.1조원 전체의 연체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공개된 잔액·세부 연체율을 재구성하면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약 63.3조원에서 산출된 값으로 보이지만, 금융감독원 자료는 분모와 제외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. 이는 공표 수치의 역산 결과이지 감독당국이 확인한 산식이 아니다.

CONTENTS

이 글의 순서

- 01 연구소의 판단
- 02 확정된 사실
- 03 왜 이런 구조인가
-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-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- 06 지금 할 일
- 07 갈림길
- 08 함께 읽을 것
- 09 근거와 검증

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136.1조원, 가계 연체율은 0.83%로 발표됐습니다. 그러나 이 잔액과 기업대출을 그대로 가중하면 전체 연체율은 1.02%여서 공표된 1.08%와 맞지 않습니다. 보험계약대출 72.8조원을 제외하면 공표치가 재현됩니다.

01 · 확정된 사실

확정된 사실

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8일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266.0조원, 연체율이 1.08%라고 발표했습니다. 가계대출 잔액은 136.1조원, 연체율은 0.83%였습니다.

대출채권	266.0조원	전분기 대비 1.9조원 증가
가계대출	136.1조원	연체율 0.83%
기업대출	129.8조원	연체율 1.21%
보험계약대출	72.8조원	가계대출에 포함
전체 연체율	1.08%	전분기 대비 0.26%p 상승
부실채권비율	1.31%	기업 1.62%

금융감독원 표는 보험계약대출을 IFRS17상 책임준비금의 차감계정이지만 통계의 연속성을 위해 대출채권 현황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.

연체율 표에는 가계대출 0.83%, 주택담보 0.37%, 주택담보 외 2.88%가 나오지만 각 비율의 분모 금액과 보험계약대출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.

공표된 잔액과 연체율을 그대로 연결하면 전체 연체율을 재현할 수 없고, 보험계약대출을 뺀 뒤에야 같은 자리수로 맞습니다.

02 · 왜 이런 구조인가

왜 이런 구조인가

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채권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분모에 어떤 대출이 들어가는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잔액과 비율을 나란히 보고도 같은 모집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.

$136.1\text{조원} \times 0.83\%$ 와 $129.8\text{조원} \times 1.21\%$ 를 더해 266.0조원으로 나누면 1.015%, 반올림 1.02%입니다. 공표된 1.08%와 0.06%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

가계대출에서 보험계약대출 72.8조원을 빼면 63.3조원입니다. 이를 가계 연체율의 분모로 두고 기업대출과 합치면 1.0849%, 반올림 1.08%가 됩니다.

같은 방식은 2026년 3월 말 전체 연체율 0.82%, 주택담보·주택담보 외 세부 비율, 세 분기 부실채권비율과 변동폭도 재현합니다. 다만 재현된다고 해서 공식 산식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.

03 ·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가계대출 잔액에는 포함되지만 공표 연체율의 분모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. 그 잔액은 72.8조원으로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습니다.

재구성한 63.3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1.7조원입니다. 낮은 주택담보 연체율이 가계 합계 0.83%를 낮춥니다.

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이 포함된 주택담보 외 연체율은 2.88%입니다. 가계 합계 하나만 보면 대출 종류별 차이가 가려 집니다.

미조정 가중평균	1.015% → 1.02%	136.1조원 전체 사용
재구성 분모	63.3조원	136.1 72.8
조정 가중평균	1.0849% → 1.08%	보험계약대출 제외
기업 비중	67.2%	$129.8 \div 193.2$

04 ·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
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
01 · 공식 분모	금융감독원 발표표는 연체율의 분모 금액과 보험계약대출 제외 여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.
02 · 보험계약대출 상태	72.8조원의 상환 상태를 별도로 보여 주는 공표 지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
03 · 통계 연결	잔액 표와 연체율 표가 서로 다른 모집단이라는 표지가 없어 두 수치를 곧바로 연결하기 쉽습니다.

04 · 반올림 한계

조원 단위 잔액과 소수 둘째 자리 비율을 사용한 역산이므로 정확한 원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05 · 지금 할 일**지금 할 일****국민**

- 보험회사 대출을 보험계약대출·주택담보·신용·기타로 나눠 잔액과 다음 납입일을 확인합니다.
- 가계 연체율 하나를 자기 대출의 위험으로 읽지 말고 같은 종류의 세부 비율을 봅니다.
-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미납 시 처리 방식과 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조건을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.

금융회사

-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함께 제시할 때 두 수치의 모집단 차이를 표기합니다.
- 보험계약대출의 잔액과 건전성 관리 지표를 다른 가계대출과 구분해 설명합니다.

당국

- 연체율 표에 분모 금액과 제외 항목을 함께 공개합니다.
- 보험계약대출을 잔액에는 포함하고 연체율에서 제외한다면 그 이유와 별도 상태 지표를 명시합니다.

갈림길**다음 분기 표에 분모가 붙는가**

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· 가계 연체율의 산정대상 금액과 보험계약대출 처리

A

분모와 제외 항목을 공개한다
잔액과 비율이 같은 모집단인지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B

현재 표를 유지한다
공표치 재현을 위해 매 분기 외부에서 역산해야 하고 오독 가능성이 남습니다.

어디를 보면 아는가 · 2026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자료의 연체율 표와 각주를 확인합니다.

함께 읽을 것**3개의 연결 지식**

넥서스 브리프 왜 같은 분기에 216.1%와 202.6%가 함께 나오나 ↗

넥서스 브리프 새 대출이 줄어든 분기에 잔액은 왜 50만원 늘었나 ↗

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↗

근거와 검증

확인한 사실·숫자 6건

01	2차 · 2026년 6월 말 대출채권 잔액·연체율·부실채권비율과 세부 표 금융감독원 발표문 KDI 전제 및 첨부 R26080895.pdf · 확인 2026-08-31 · 확인 2026-08-31 원문 열기 ↗
02	2차 · 2026년 3월 말 잔액 264.1조원, 가계 연체율 0.87%, 기업 0.80% 금융감독원 발표문 KDI 전제 · 확인 2026-08-31 · 확인 2026-08-31 원문 열기 ↗
03	2차 · 2025년 12월 말 잔액과 연체율·부실채권비율 금융감독원 발표문 KDI 전제 · 확인 2026-08-31 · 확인 2026-08-31 원문 열기 ↗
04	2차 · 보험계약대출 72.8조원, 주택담보 51.7조원, 신용 8.1조원, 기타 3.4조원 SR타임스 2026년 8월 28일 보도 · 확인 2026-08-31 · 확인 2026-08-31 원문 열기 ↗
05	파생 · 미조정 1.02%, 보험계약대출 제외 시 1.08% $(136.1 \times 0.0083 + 129.8 \times 0.0121) \div 266.0$ 및 $((136.1 - 72.8) \times 0.0083 + 129.8 \times 0.0121) \div (266.0 - 72.8)$. 조원 단위 반올림 수치 사용 · 확인 2026-08-31
06	파생 · 재구성 분모 약 63.3조원과 기업 비중 67.2% $136.1 - 72.8 = 63.3$, $129.8 \div 193.2 = 67.18\%$. 공식 산식이 아니라 공표 수치의 재구성 · 확인 2026-08-31
추적 예정	2026년 9월 말 자료에서 연체율 분모와 보험계약대출 제외 여부가 명시되는지, 같은 계산으로 공표 치가 재현되는지 확인합니다.
정정 이력	정정 없음. 분모 63.3조원은 공표 수치의 역산값이며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공식 산식이 아닙니다.
면책 고지	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통계 재구성입니다.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공식 산식 설명 이 아니며, 조원 단위 반올림 수치 때문에 정확한 원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작성	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